

응답 9개



응답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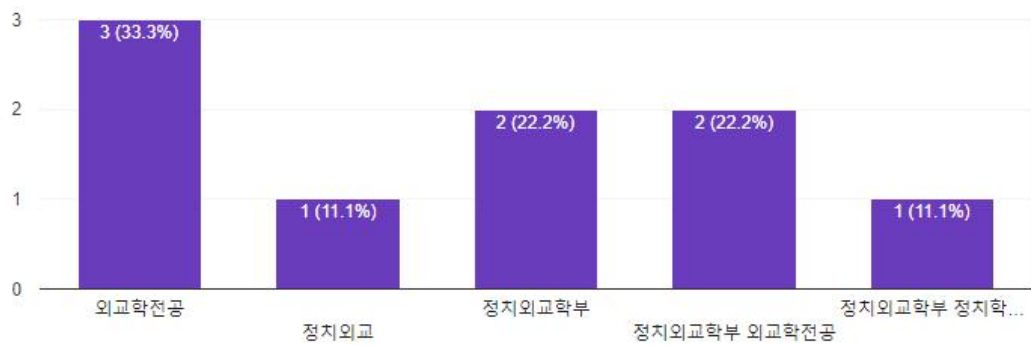
요약

질문

개별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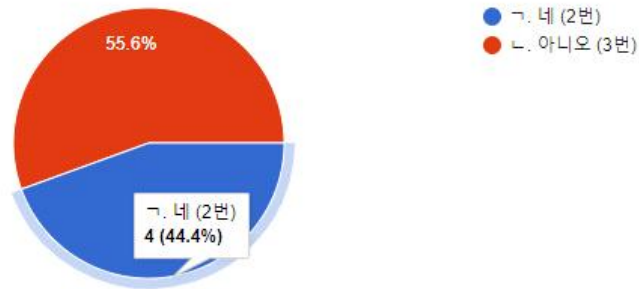
0. 주전공이 무엇인가요?

응답 9개



1.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럽연계전공에 대한 안내에 만족하시나요?

응답 9개



2. 1번 문항에 대해 "네"라고 대답한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응답 3개

수강 요건이 명확해서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고 궁금한 사항을 외교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인문대의 다양한 수업과 연계되어 있어 전공 밖의 수업도 들어볼 수 있다

3. 1번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응답 5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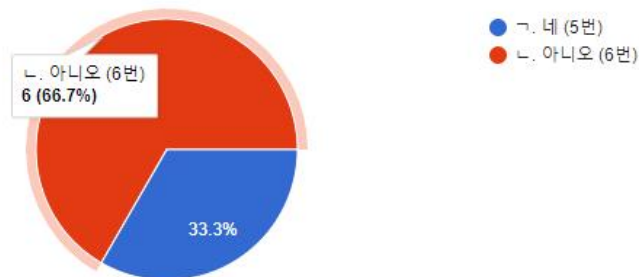
전공인정과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일일이 공지를 찾아봐야하고 인정과목이 자주 바뀌어서 번거롭다.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질문이 있을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할지 찾기가 어렵다.

홈페이지 등에 연계전공과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4.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럽연계전공의 과목 체계에 만족하시나요?

응답 9개



5. 4번 문항에 대해 "네"라고 대답한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응답 3개

다양한 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 유럽관련 전공을 들을 수 있다

인정되는 과목의 수가 다양해서.

다만 유럽지역연구와 같이 유럽지역학만의 수업이 더 많이 열리고, 학과 간 연계가 이뤄진 수업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6. 4번 문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응답 6개

유럽지역학 특수 과목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 전공 강의 9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전공 인정 강의들이 자주 열리지 않아서 <정치 경제 철학 전공>과 같이 강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대에서 인정되는 수업이 확장되면 좋겠다.

인문대와 사회대에서 개설되는 유럽지역학 전공인정 과목이 다소 적어 수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교과목이 적고, 인문대의 경우 인정되는 교과목 중에서도 열리지 않는 과목이 많아 수강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 유럽연계전공에서 제공되는 과목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응답 9개

윤석준 교수님 수업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럽 '지역'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유럽지역연구, 전반적인 유럽의 문화, 정치 등을 배울 수 있어 틀을 잡기 좋았음

서양 근대사의 이해2. 홉스봄의 저작을 다뤄서 매우 유익함.

유럽지역연구
가장 유럽지역학 연계전공에 적합한 내용이라서

유럽지역학입문. 유럽에 대해 상세히 배울 수 있어서 유럽연계전공에 대해 배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지역학 입문: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럽의 현대정치를 이해하기 좋다

유럽지역통합이론 : 유럽의 역사와 정치를 아울러 현상분석을 제공하는 좋은 수업입니다

유럽지역연구(윤석준 교수님)
유럽연계전공에 적합한 과목이고 유럽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었습니다.

8. 유럽연계전공에서 제공되는 과목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과목과 그 이유는?

응답 9개

없음.

없습니다

없음

불만족스러운 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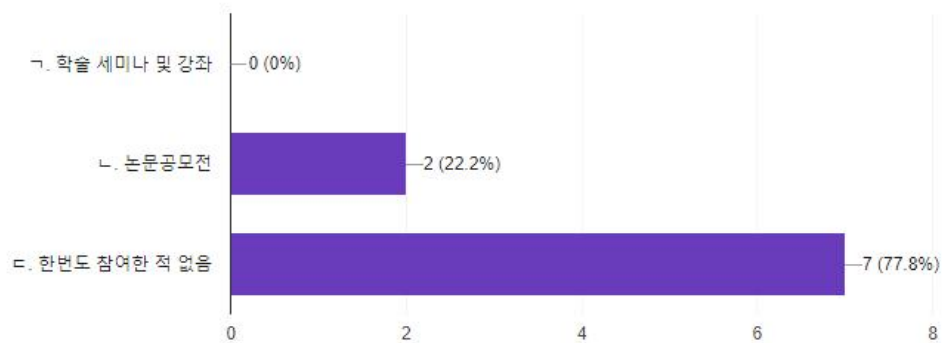
서양 중세사. 부족한 저의 지식으로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유럽지역통합이론: 이론과 발제가 많아 수업이 약간 붕 뜨는 기분이었다. 정확한 지식을 얻어가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가는 느낌?

영국사 (황혜진 교수님)
피상적인 지식만 배운 것 같습니다.

9. 유럽연계전공에서 제공되는 행사 중 참여한 행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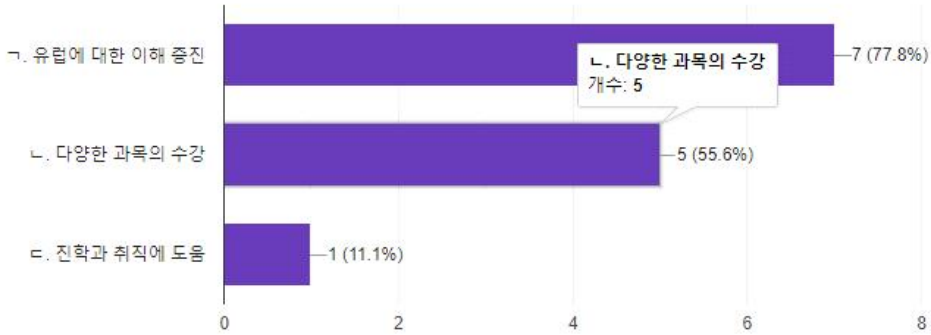
응답 9개



10. 유럽연계전공을 선택해서 도움이 된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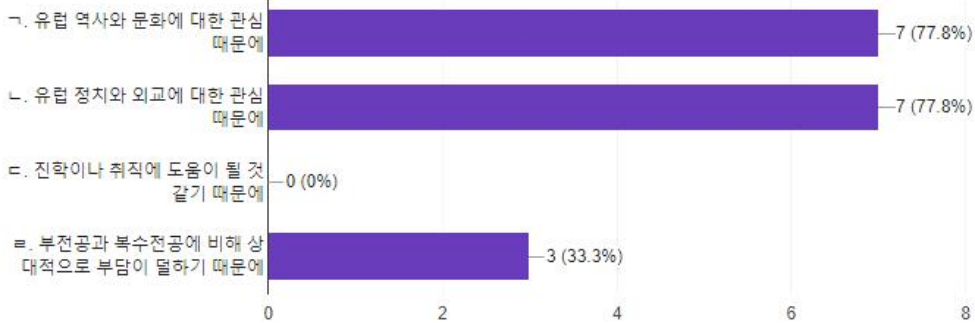


응답 9개



11. 유럽연계전공을 선택하게 된 까닭은?

응답 9개



12. 유럽연계전공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응답 6개

체계화, 유럽 지역 특수 과목을 추가 개설

전공인정 강의가 좀더 폭넓어지면 좋겠다.

<정치 경제 철학 전공> 여의도 정치연구소 인턴십과 같이 대외활동 기회가 증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철처럼 인턴십 연계같은 추가적인 프로그램 확충

유럽지역학 과목 더 개설해주세요!

특히 윤석준 교수님의 수업들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EU법 강의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